

“민생 회복 집중” 市 7조6천69억·道 12조5천436억 편성

●2025년 광주시·전남도 예산안

광주시, 적극재정 운용...2년 만에 '7조원 시대' 회복
전남도, 지역소멸위기 선제 대응 핵심현안 추진 속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예산으로 각각 7조6천69억원과 12조5천436억원을 편성하고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한다. ▶관련기사 3·7면 특히 광주시는 올해 예산 대비 7천27억원(10.2%) 증가하며 2년 만에 예산 7조원 시대를 다시 열었고, 전남도 역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올해 예산보다 2천974억원(2.4%) 늘어난 규모로 핵심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전남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예산안을 시·도의 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7조원이 무너졌던 광주시는 내년 예산으로 7조6천79억원을 편성했다. 경제·인구·기후 등 3대 지표 회복과 함께 산업·인재·창업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극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민생 회복·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돌봄 확대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여기에 유사·중복성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똑똑한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주요 투자사업 점검, 비효율 예산 발굴,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등을 추진했다.

또한 실·국장이 참여한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

하고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분할 편성 또는 폐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회복과 동시에 미래 투자에도 중점을 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편성한 12조5천436억원 규모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는 3천666억원(3.8%) 증가한 9조9천622억원, 특별회계는 288억원(2.7%) 늘어난 1조1천386억, 기금은 990억원(6.4%) 줄어든 1조4천428억원이다.

최근 3년 간 전남도 예산은 2023년 11조8천999억원, 2024년 12조2천461억원, 2025년 12조5천436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장기 SOC 사업, 유사·중복, 연례 반복 사업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도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박선경기자



수능 시험지 도착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용 앞두고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되기 시작한 11일 오후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에 도착한 시험지를 관계자들이 보관실로 옮기기 위해 검사하고 있다. 문제지는 시험 당일 아침 교사장으로 최종 운반된다. /김애리 기자

수능 D-2...광주·전남 3만787명 응시

83개 시험장 운영...내일 수험표 배부·예비소집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수험생 3만787명이 응시한다. ▶관련기사 2면

1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광주 38개, 전남 45개 등 총 83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진다.

광주지역 응시자는 총 1만6천846명(재학생 1만1천684명, 졸업생 4천420명, 검정고시 등 742명), 전남지역 응시자는 총 1만1천941명(재학생 1만1천192

명, 졸업생 2천365명, 검정고시 등 394명)이다. 지난해 대비 각각 757명(4.7%), 478명(3.6%) 늘었다.

올해는 고3 재학생 증가와 함께 의대 모집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첨단학과 증원, 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이 수능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 전날인 13일 오전 예비소집에 참석해 소속(출신) 학교에서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에 접수한 검정고시·타 도시 고교 졸업 수험생의 경우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험표를 받는다.

수험표를 교부받으면 해당 시험장을 방문해 출입구와 교실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지이므로 외부에서만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점심 도시락을 챙긴 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은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추가로 지

참해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 본부를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흑색 연필, 0.5mm 흑색 샤프핀, 지우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마스크, 휴대가능한 야날로그시계 등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수능시험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힘 없이 달려온 수험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이 기자

Today
이재명 정치생명 '15일' 평가 4면
3분기지역 건설경기 한파극심 12면
장현식, '4년 52억' LG행 16면

수능일 낮 최고 22도 '포근'...늦은 오후 '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광주·전남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 광주·전남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7-14도, 19-22도로 예상됐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 최저기온은 2-8도, 최고기온은 3-6도 높다.

주요 지점 최저·최고기온은 ▲광주 1도·20도 ▲목포 13도·20도 ▲여수 14도·19도 ▲순천 11도·20도 ▲광양 12도·20도 ▲나주 10도·20도다. 이날 오전부터 점차 흐려져 오후 6-9시 사이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수능 전까지 광주·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수험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가정에서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2,138원

고효율 조명 사용하고
안쓰는 조명 끄기
₩4,693원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1,668원

샤워시간 1분 ↓
₩1,333원

샤워 중 물 잠그기(비누칠 등)
₩4,000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5,631원

대중교통 이용
₩69,010원

1등급 전기차 타기
₩68,672원

1등급 타이어 사용
₩14,018원

적정 공기압 유지
₩5,077원